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151차

CATI & ARS

CATI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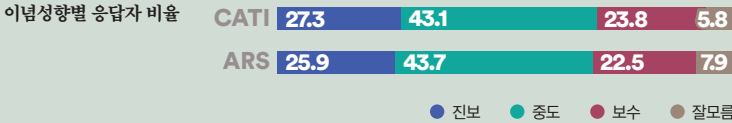
ARS #127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151차



CATI 조사개요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4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30,000개 / SKT: 15,000, KT: 9,000, LGU+: 6,000)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5년 9월 말 기준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10.4% [총 통화시도 9,656명]
조사기간	2025년 10월 17일 ~ 10월 18일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04	100.0	1004	100.0	1.00
성별	남성	501	49.9	497	49.5	0.99
	여성	503	50.1	507	50.5	1.01
연령	18-29세	155	15.4	150	14.9	0.97
	30대	151	15.0	151	15.0	1.00
	40대	172	17.1	171	17.0	0.99
	50대	198	19.7	196	19.5	0.99
	60대	174	17.3	178	17.7	1.02
	70세 이상	154	15.3	158	15.7	1.03
지역	서울	187	18.6	186	18.5	0.99
	인천·경기	330	32.9	324	32.3	0.98
	대전·세종·충청	107	10.7	109	10.9	1.02
	광주·전라	96	9.6	96	9.6	1.00
	대구·경북	97	9.7	98	9.8	1.01
	부산·울산·경남	147	14.6	149	14.8	1.01
	강원·제주	40	4.0	42	4.2	1.05

성별

49.9% 남성

50.1% 여성

지역

18.6%

32.9%

10.7%

9.7%

9.6%

14.6%

4.0%

ARS 조사개요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8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5년 9월 말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립가중)
응답률	2.0% [총 통화시도 50,153명]
조사기간	2025년 10월 17일 ~ 10월 18일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08	100.0	1008	100.0	1.00
성별	남성	543	53.9	498	49.4	0.92
	여성	465	46.1	510	50.6	1.10
연령	18-29세	135	13.4	151	15.0	1.12
	30대	145	14.4	153	15.2	1.06
	40대	179	17.8	171	17.0	0.96
	50대	205	20.3	196	19.4	0.96
	60대	188	18.7	179	17.8	0.95
	70세 이상	156	15.5	158	15.7	1.01
지역	서울	186	18.5	188	18.7	1.01
	인천·경기	333	33.0	325	32.2	0.98
	대전·세종·충청	108	10.7	110	10.9	1.02
	광주·전라	96	9.5	96	9.5	1.00
	대구·경북	97	9.6	98	9.7	1.01
	부산·울산·경남	149	14.8	149	14.8	1.00
	강원·제주	39	3.9	42	4.2	1.08

성별

53.9% 남성

46.1% 여성

지역

18.5%

33.0%

10.7%

9.6%

9.5%

14.8%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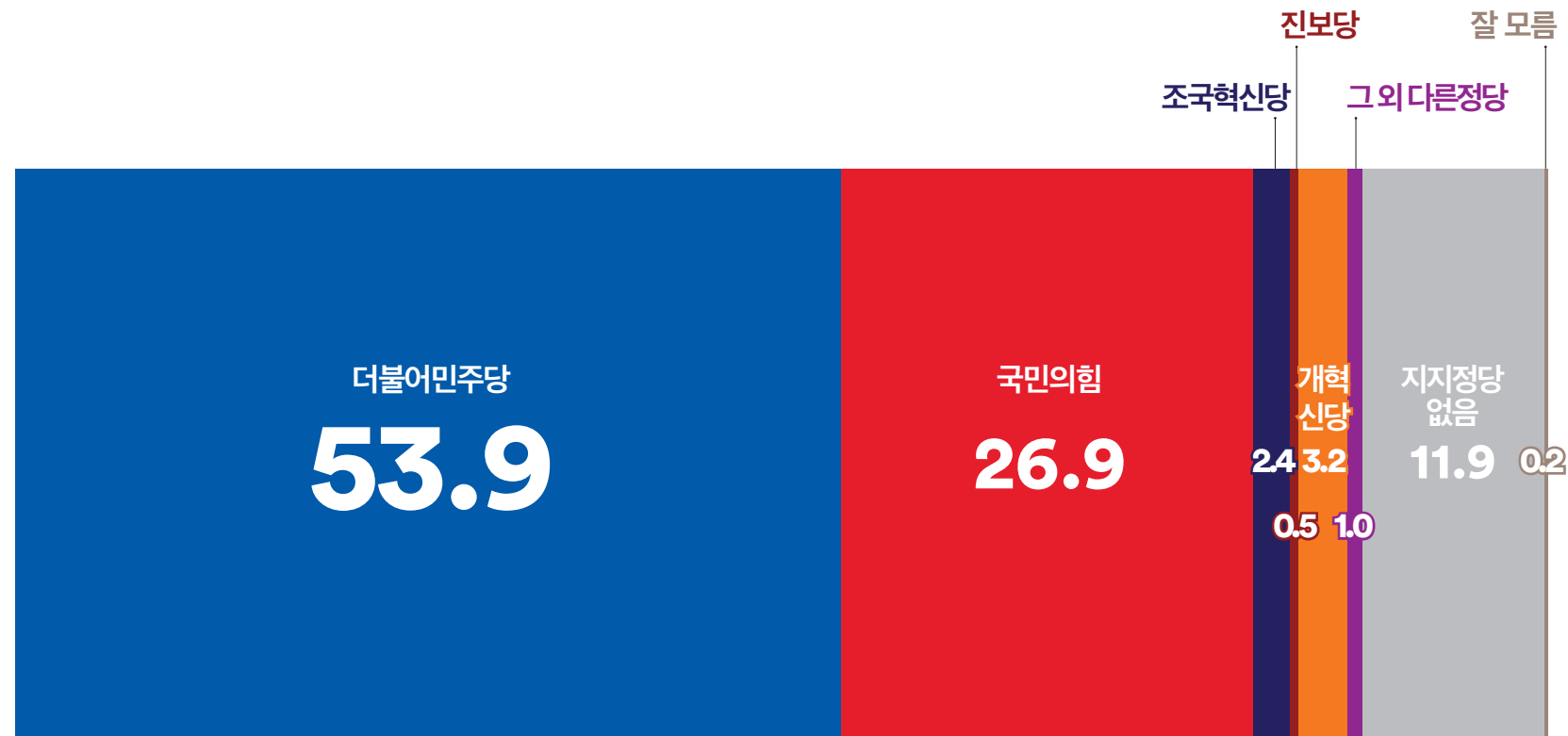
본 조사 결과의 저작권은 (주)여론조사꽃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수정은 불가하며,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여론조사꽃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에 대한 명기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제3항에 따라 '조사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 '본 자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 시 준수하여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결과를 표본조사이므로 결괏값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대·지역(권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괏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단순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당지지도와 국정운영 평가는 재결문을 포함한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에서 언급되는 '무당층'은 보기에서 '지지 정당 또는 후보가 없다'라고 응답한 계층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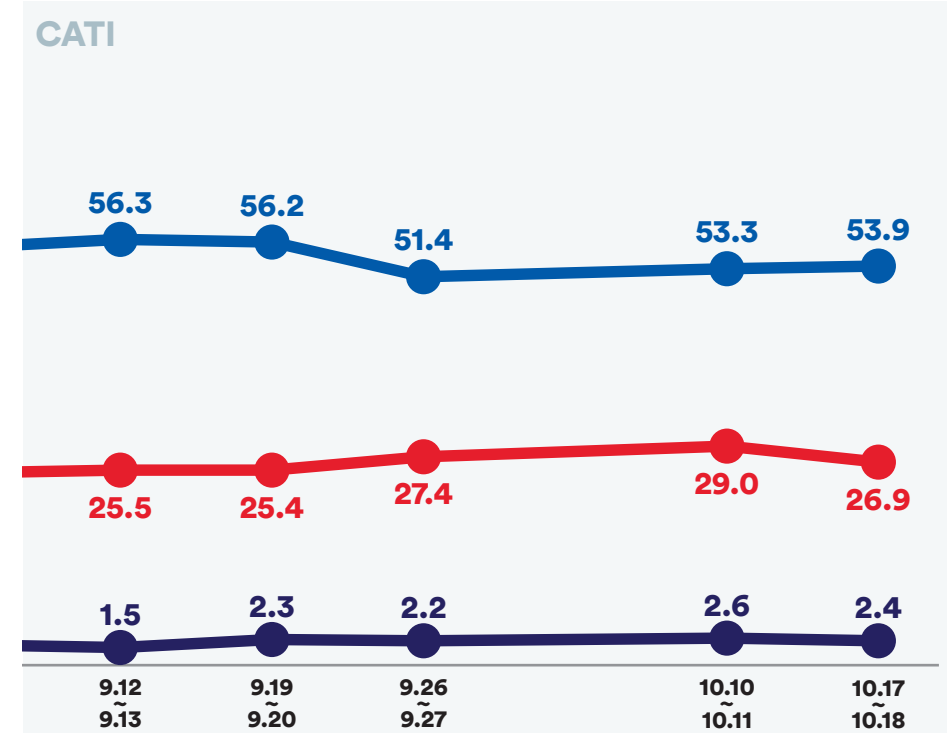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 CATI, ARS 비교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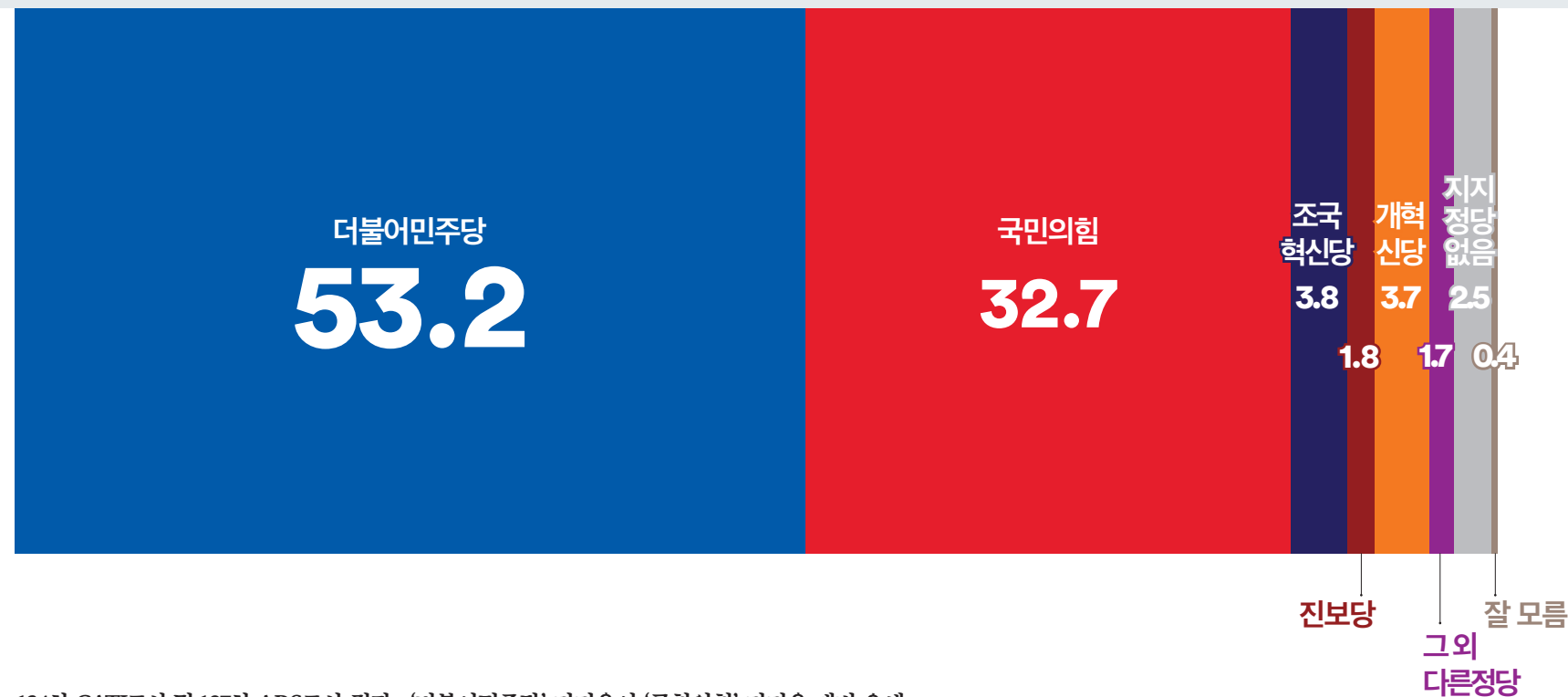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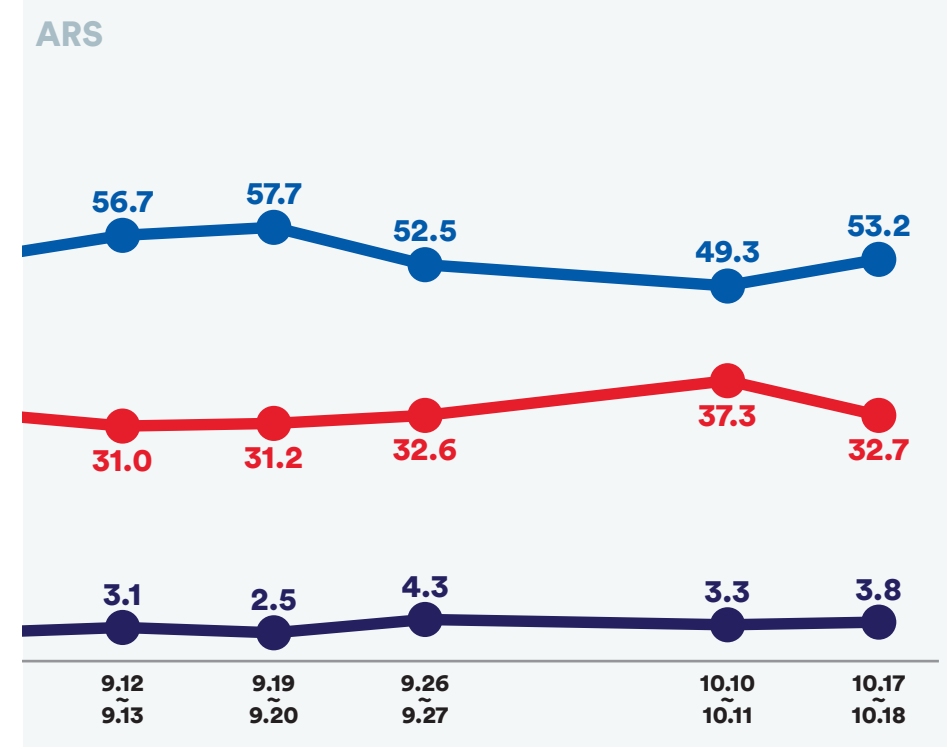
주차별
정당지지도



ARS



주차별
정당지지도



134차 CATI조사 및 127차 ARS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 대비 우세

134차 CATI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간 격차는 27.0%p (지난 조사: 24.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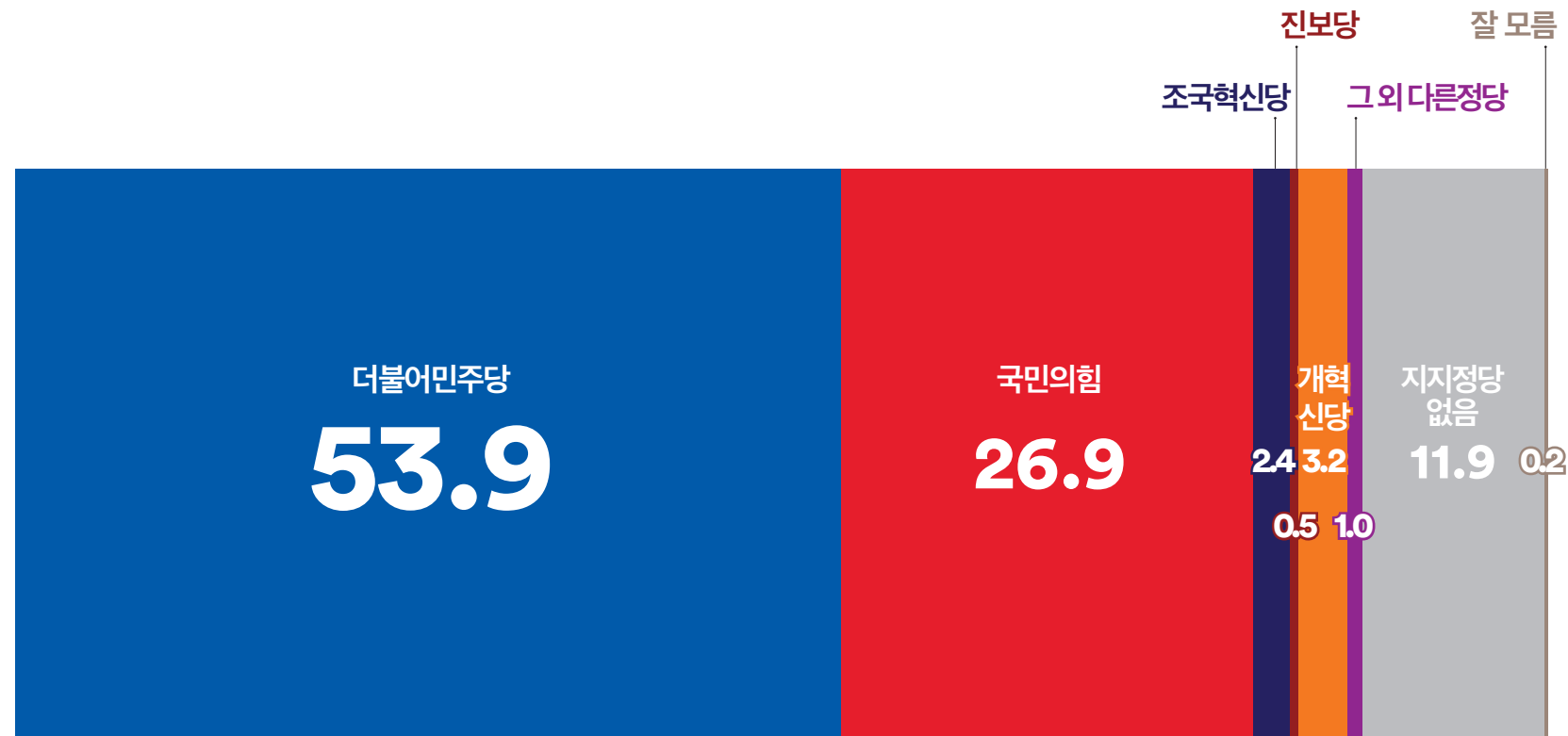
127차 ARS조사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간 격차는 20.5%p (지난 조사: 12.0%p)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진보당
■ 개혁신당 ■ 그 외 다른 정당 ■ 지지정당 없음 ■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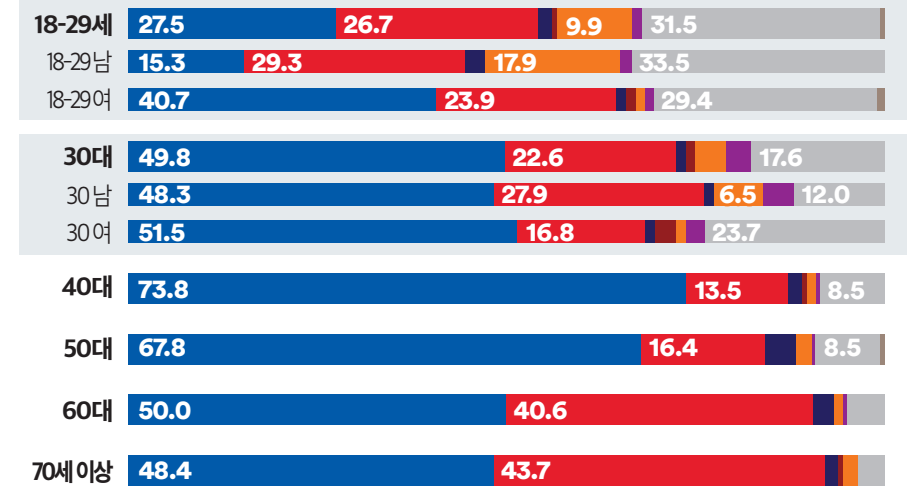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 CATI, ARS 비교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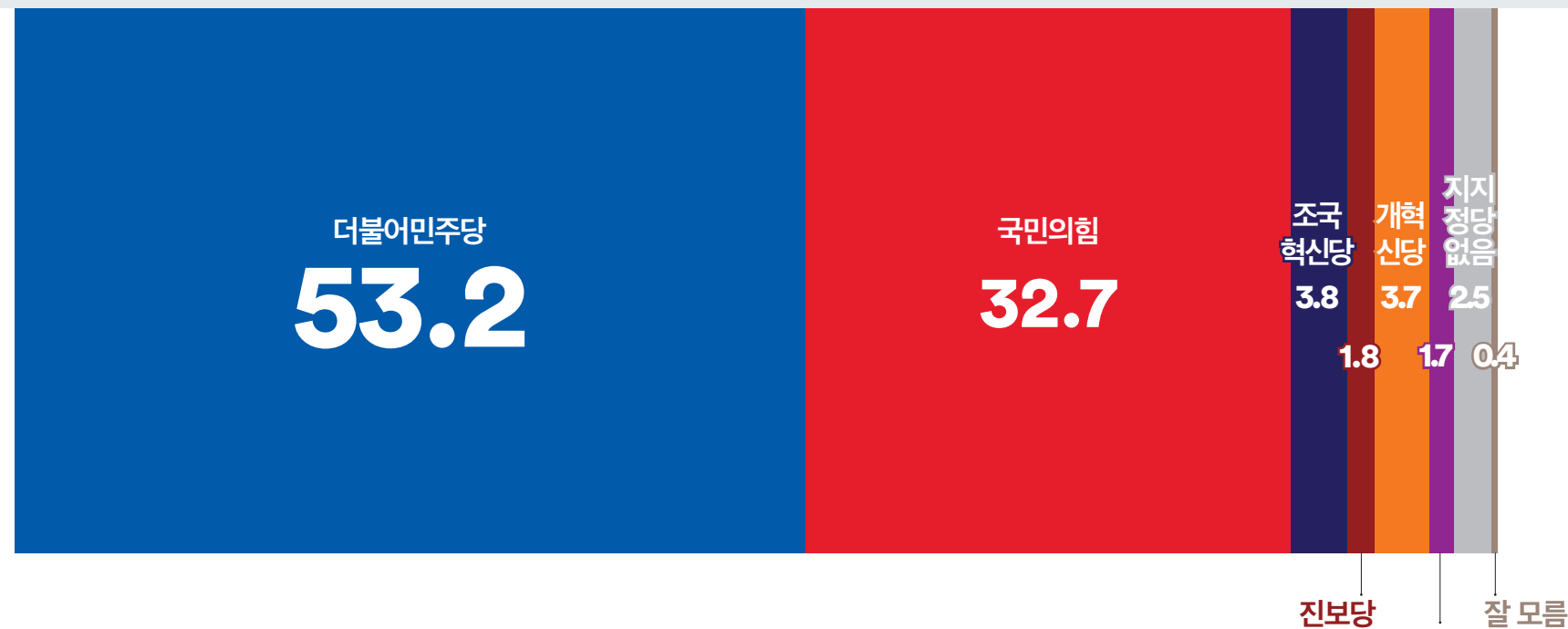
연령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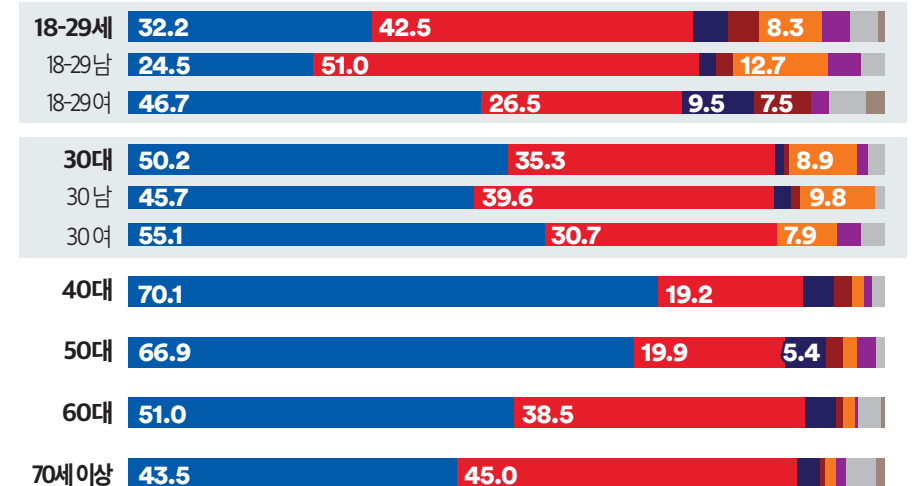
ARS



성별



연령



133차 CATI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0.6%p 상승, '국민의힘' 2.0%p 하락

126차 ARS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3.9%p 상승, '국민의힘' 4.6%p 하락

CATI조사의 30대 이상 연령층과 ARS조사의 30~60대 연령층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강도가 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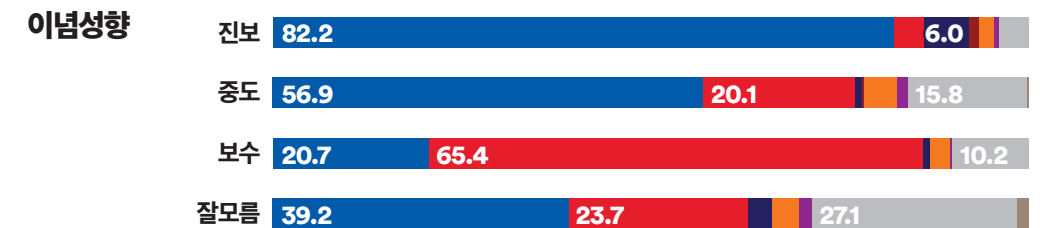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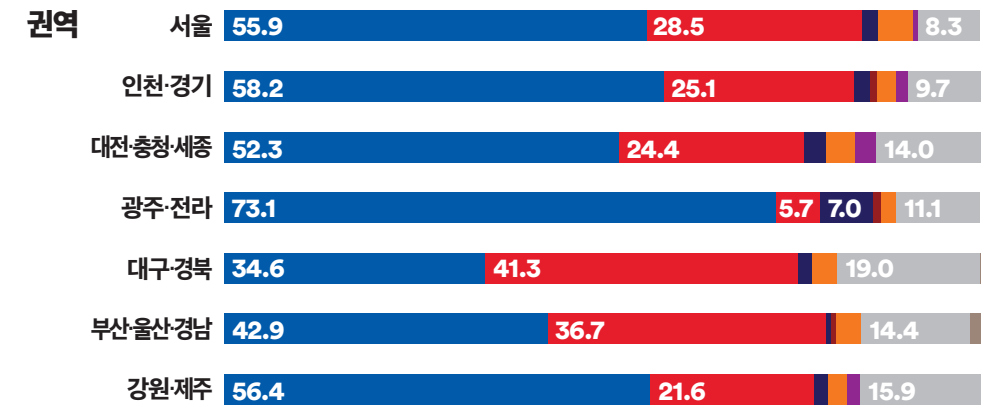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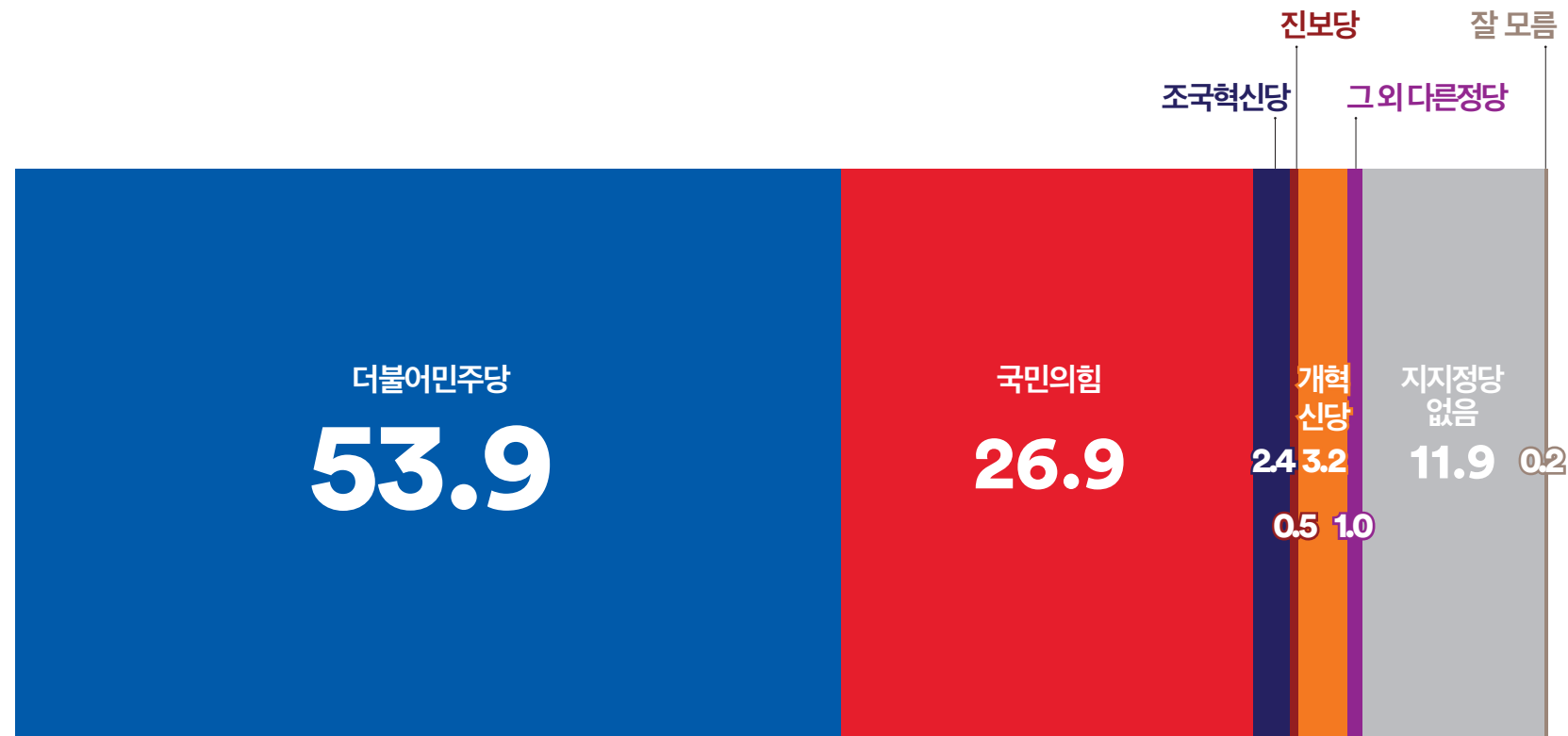
두 조사의 18~29세 남성 응답층과 ARS조사의 70세 이상 남성 응답층은 '국민의힘' 지지강도가 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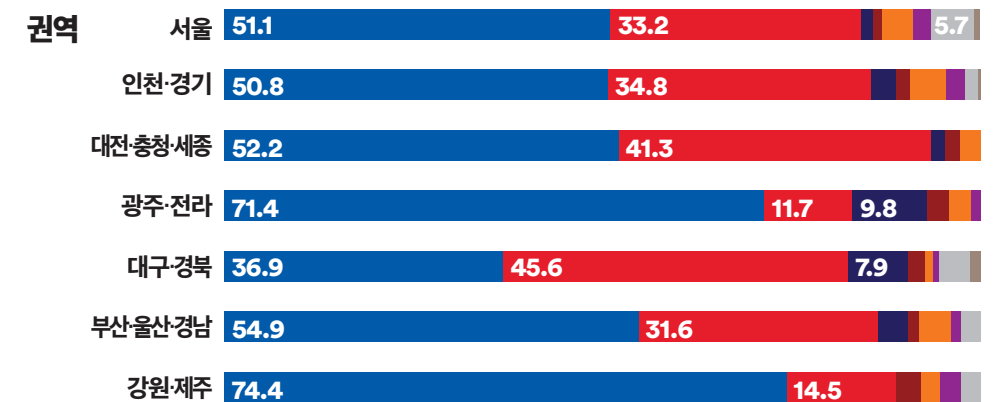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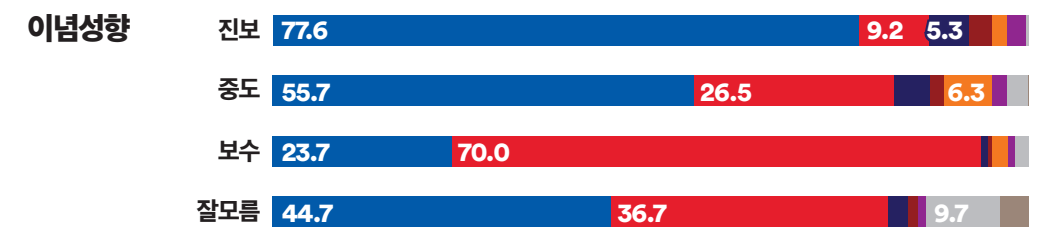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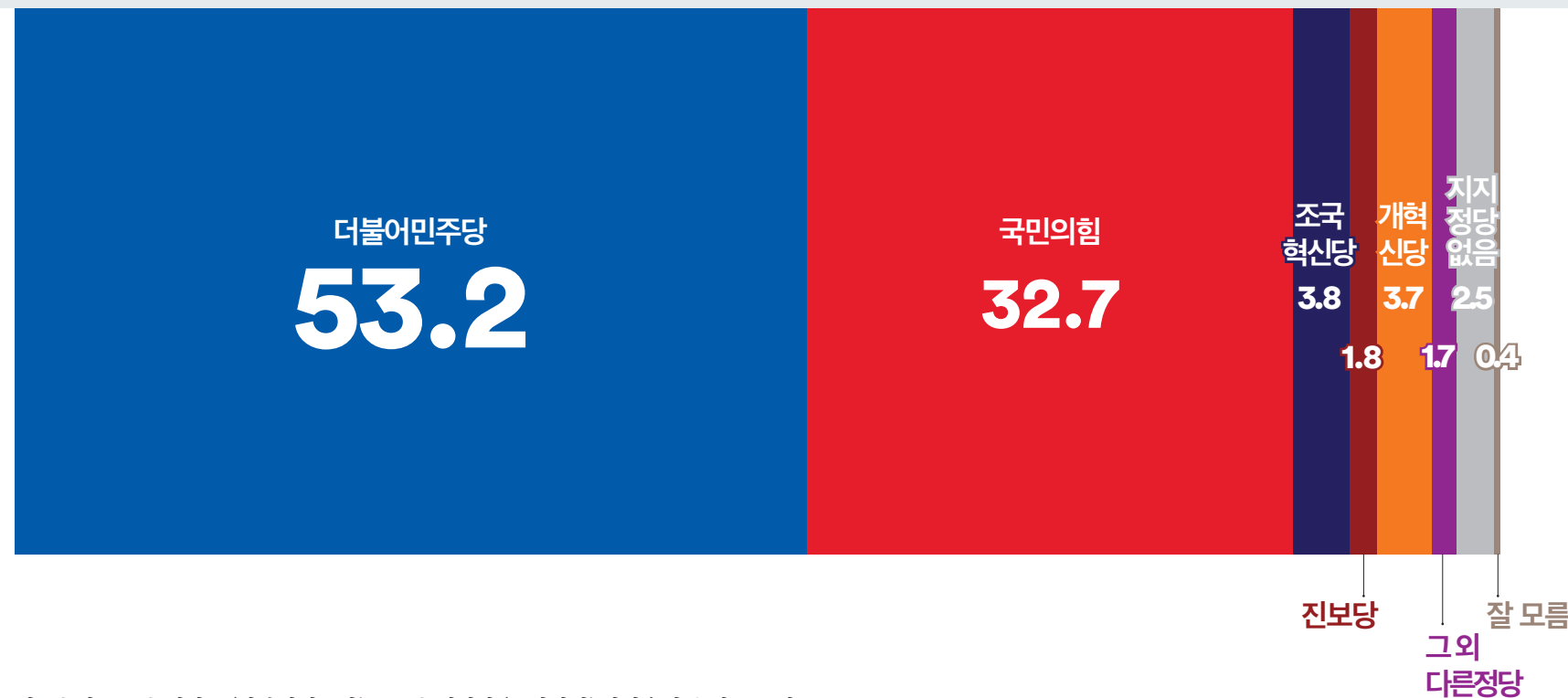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 CATI, ARS 비교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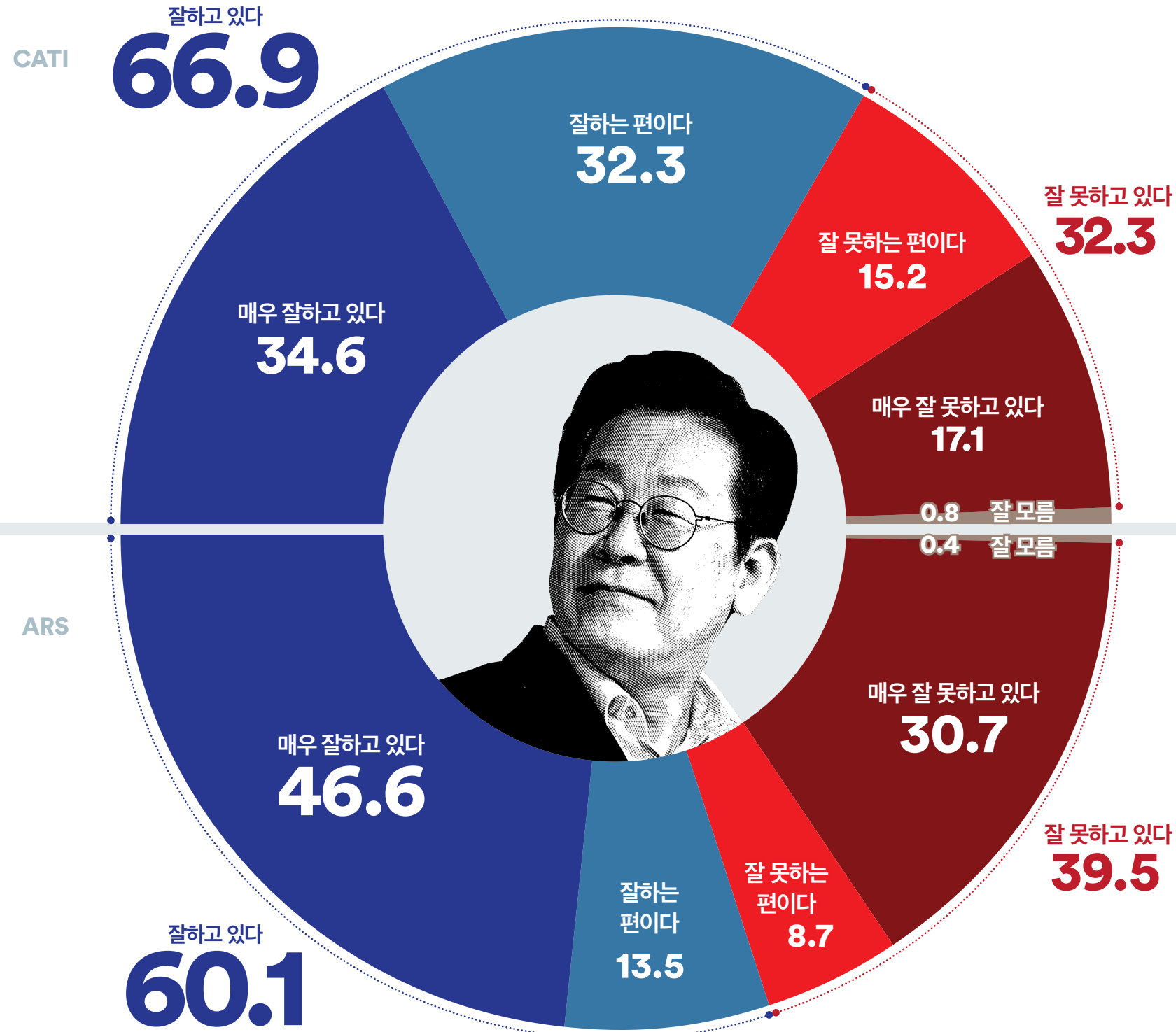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에서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우세를 보임
 두 조사의 TK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강도가 더 높음
 '더불어민주당' +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는 CATI 29.4%p, ARS 24.3%p (지난조사: CATI 26.9%p, ARS 15.3%p)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진보당
■ 개혁신당 ■ 그 외 다른 정당 ■ 지지정당 없음 ■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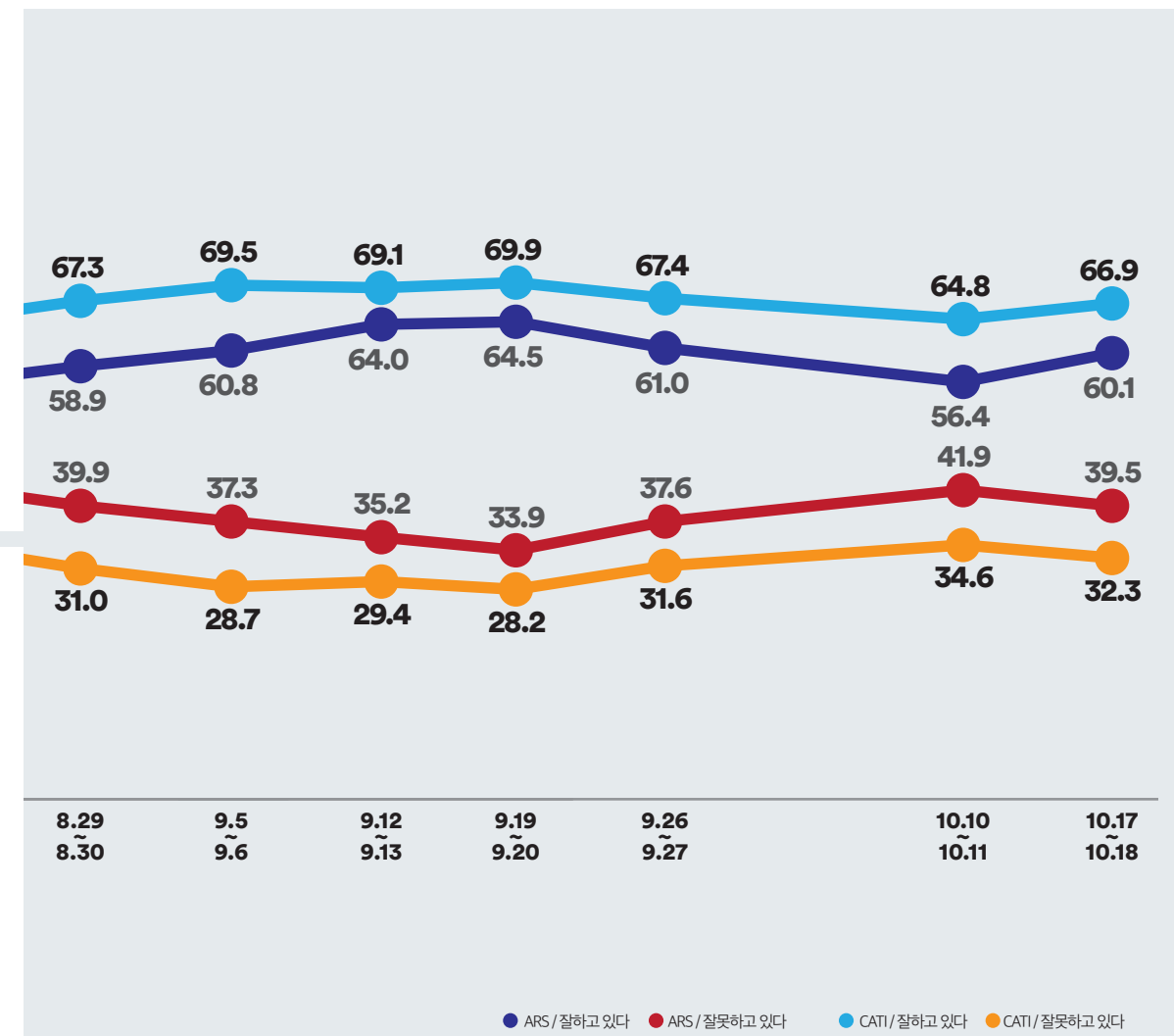
국정지도

Q.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0명 중 6명 이상의 응답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
133차 CATI조사 대비 '긍정'평가 2.1%p 상승, '부정'평가 2.3%p 하락 (응답 간 격차: 34.6%p)
126차 ARS조사 대비 '긍정'평가 3.7%p 상승, '부정'평가 2.5%p 하락 (응답 간 격차: 20.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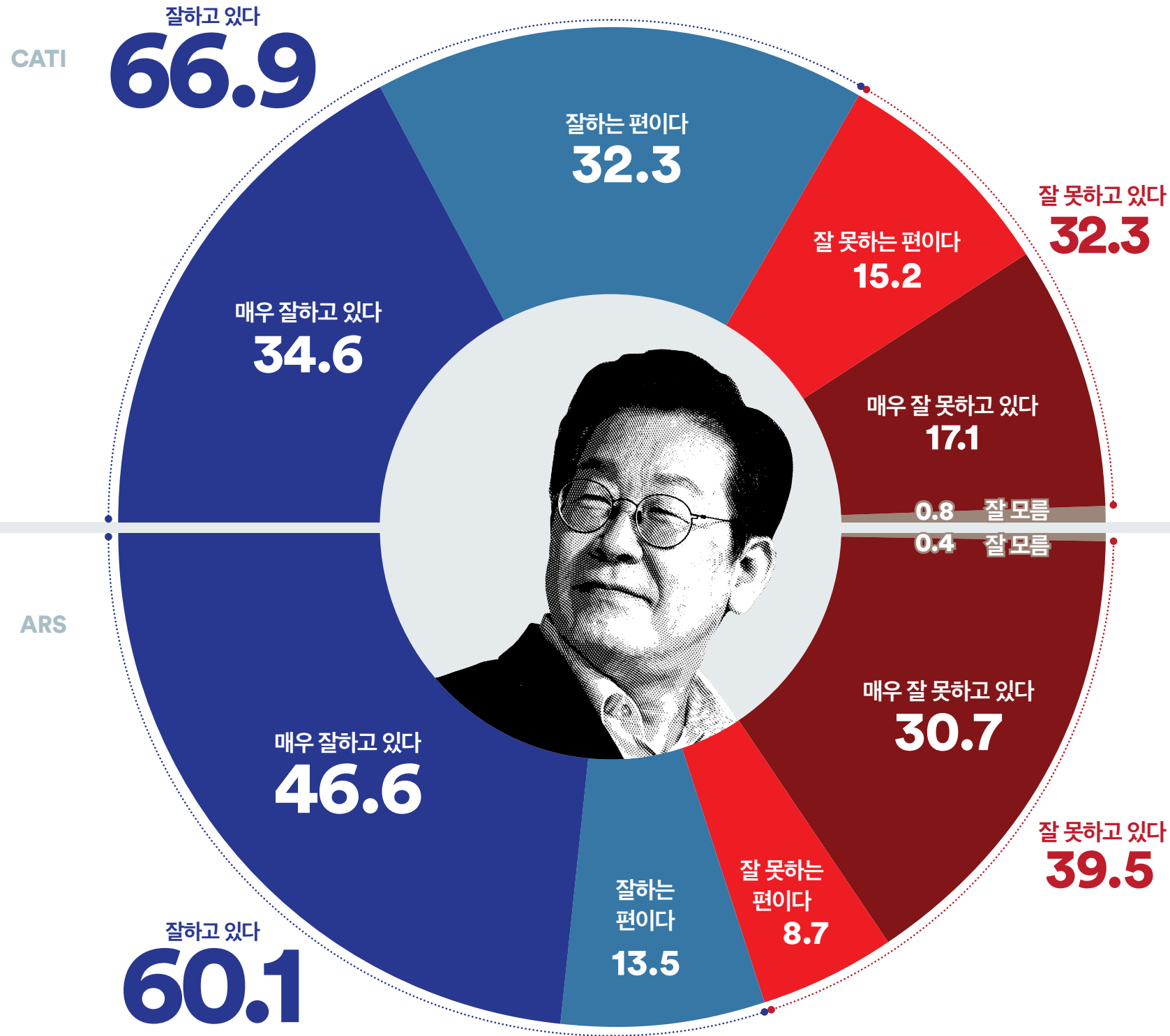
주치별 국정운영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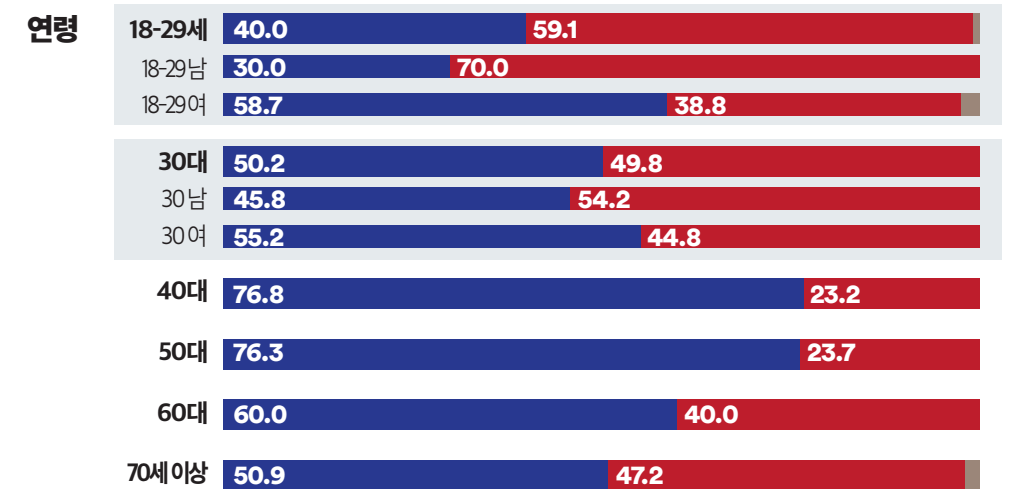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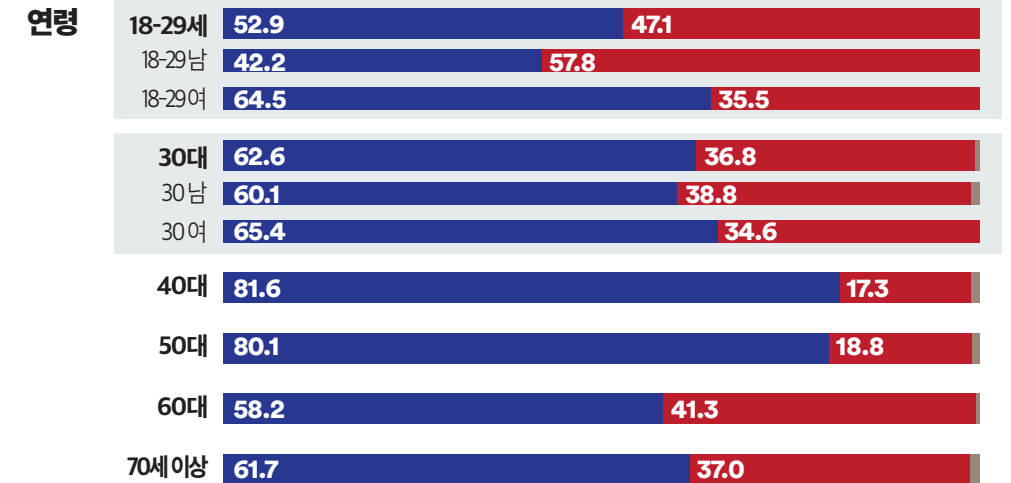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잘 모름

국정지지도

Q.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보다 우세를 보임
 두 조사 모두 40~60대 응답층에서 대통령 지지강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남
 두 조사의 18~29세 남성층, ARS조사의 70대 이상 남성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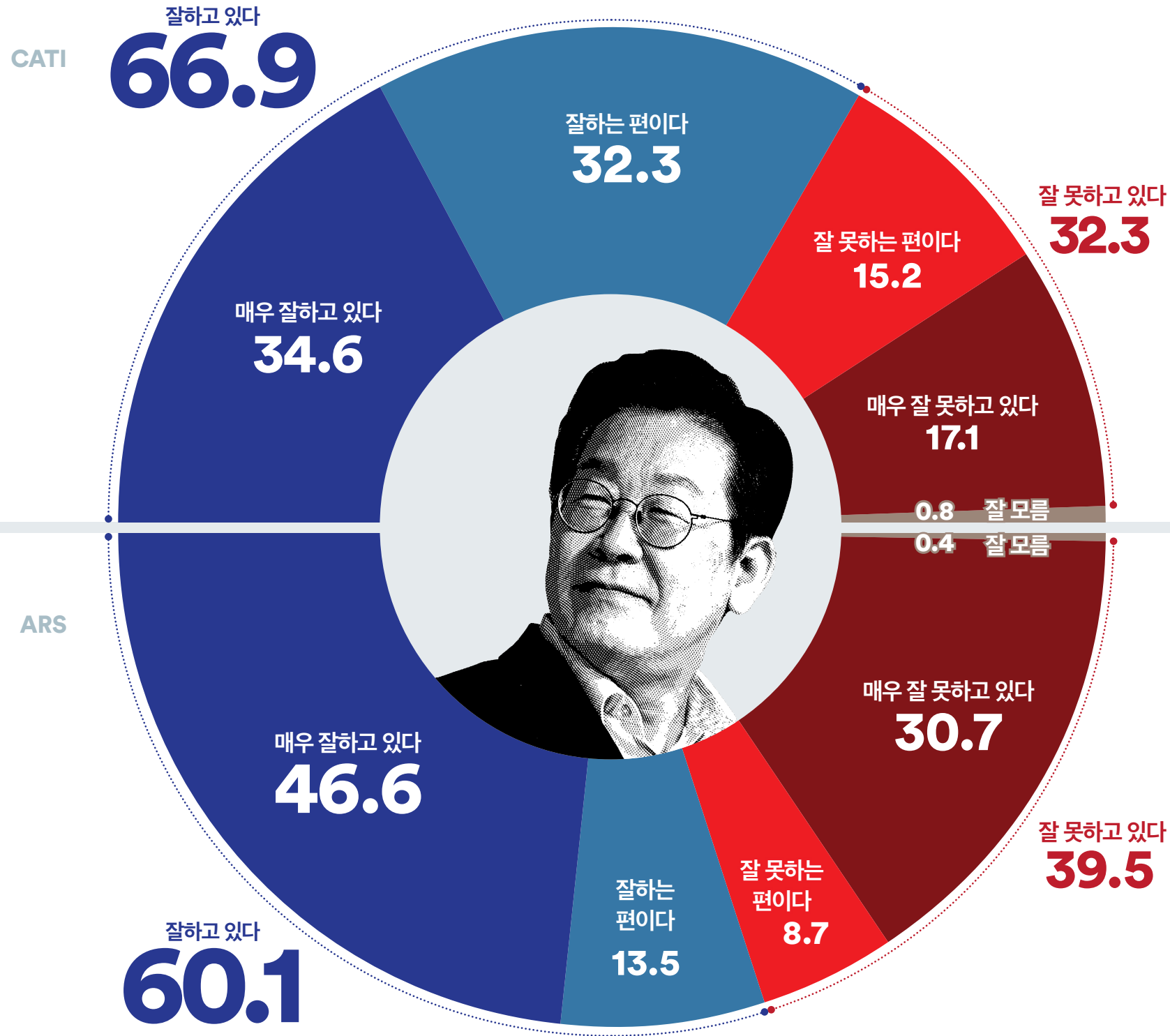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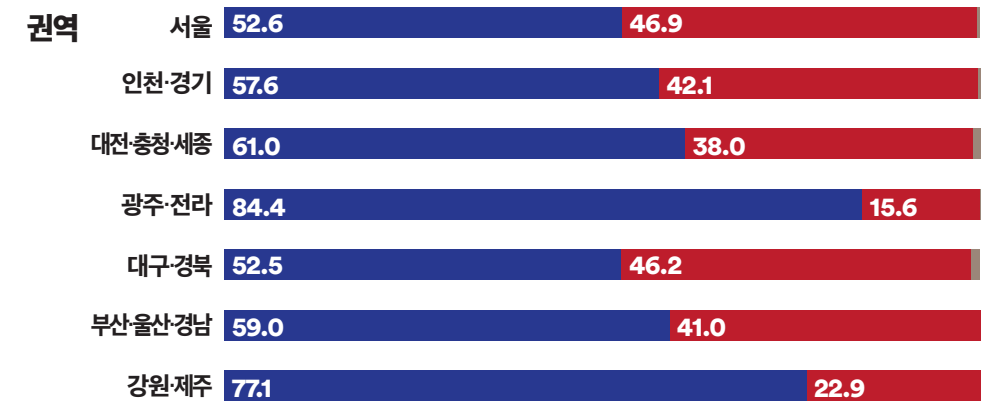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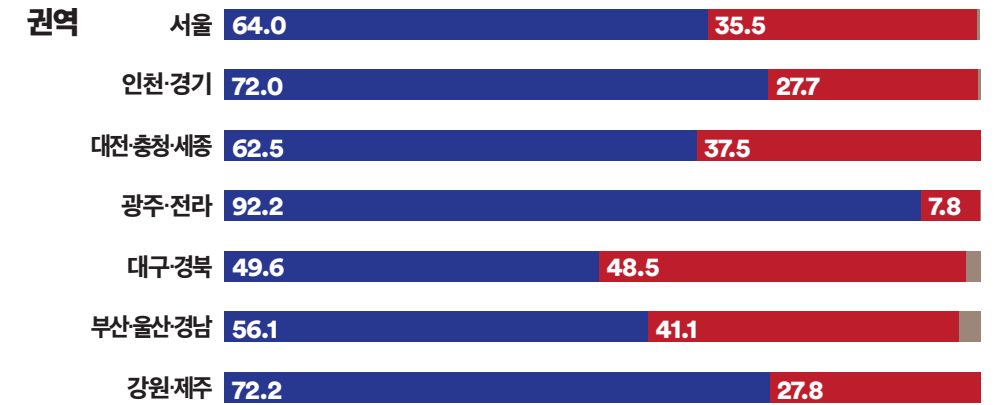


국정지도

Q.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조사의 TK권에서는 두 응답이 비등하고 나머지 두 조사의 모든 권역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진보층과 중도층은 '긍정'평가, 보수층에서는 '부정'평가 우세로 나타남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잘 모름



CCTV와 거짓 증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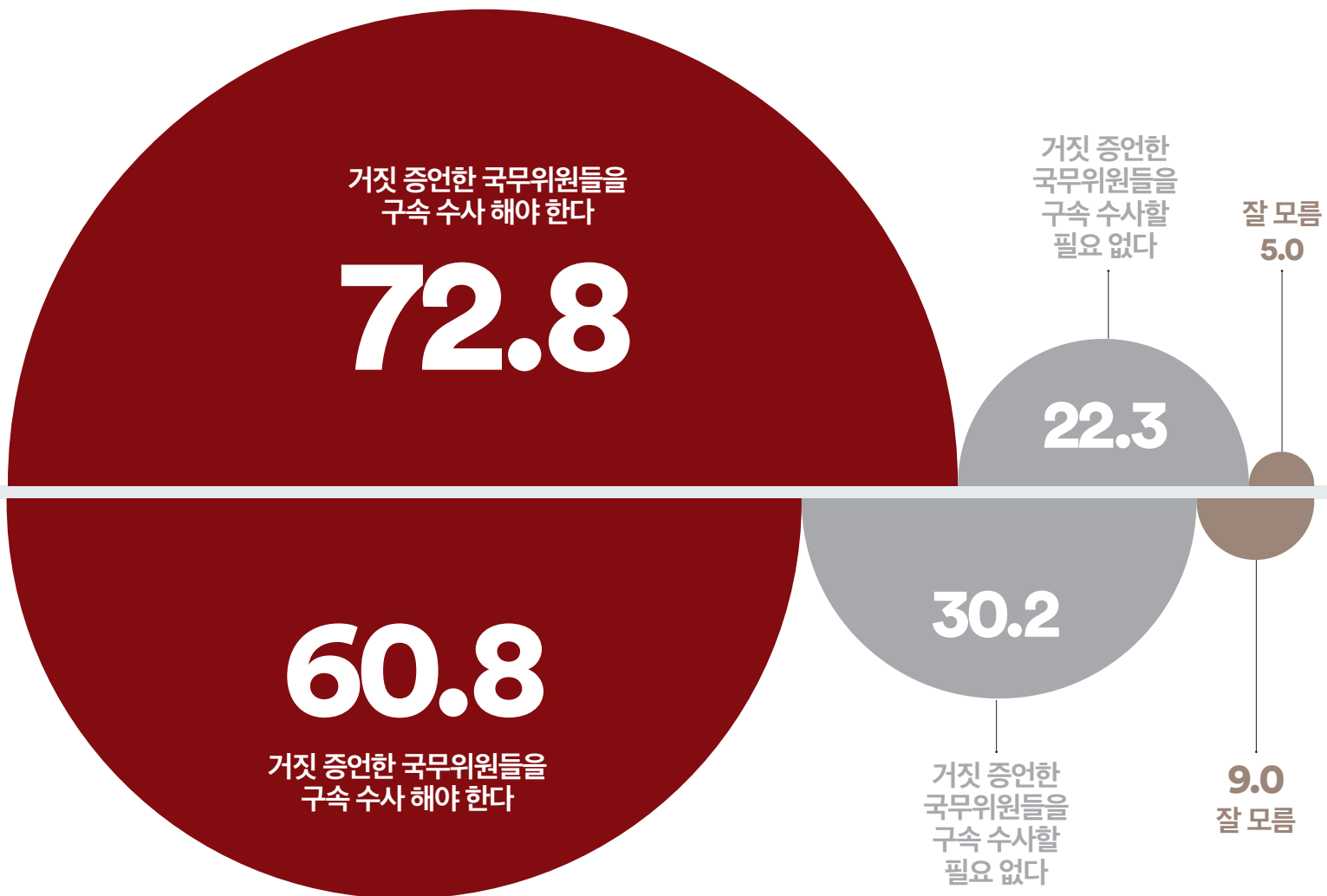
Q. 계엄 당일 계엄 문건을 확인하는 대통령실 CCTV가 공개되면서, 문건을 보지 못했다는 최상목 전 부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들의 거짓 증언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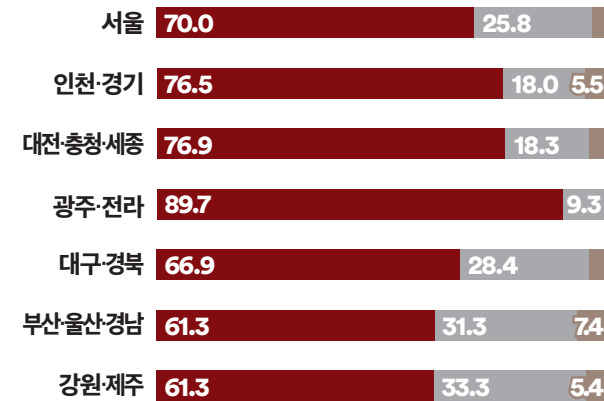
“(계엄 포고문에 대해) 전혀 논의된 바 없고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연락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오면서 다들 걱정하셨고.”
지난 1월, 국정조사 특위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발언 중

“들어가시면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그리고 저한테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옆의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그게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습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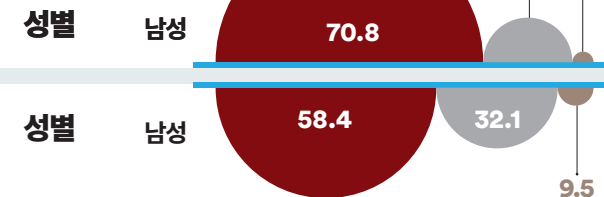


10명 중 6~7명의 응답자는 ‘거짓 증언 한 국무위원들을 구속 수사 해야 한다’고 압도적으로 응답
두 조사의 모든 권역, 모든 연령에서 ‘거짓 증언 한 국무위원들을 구속 수사 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조사됨
ARS조사의 30대 이하 남성층과 70세 이상 남성층에서는 두 응답이 비등하거나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구속 수사할 필요 없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필요없다: C 56.7%, A 7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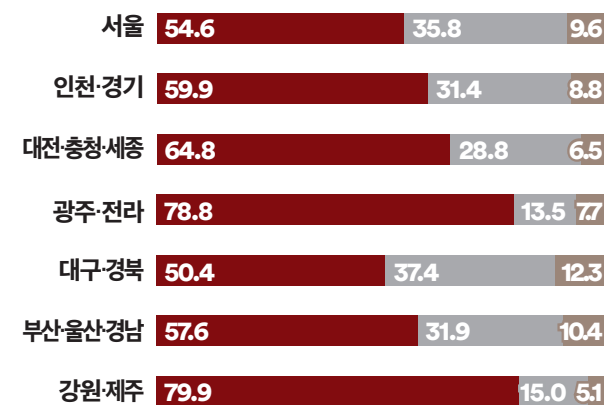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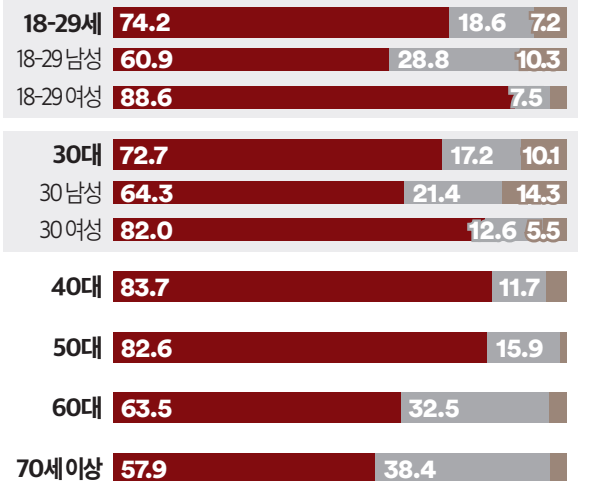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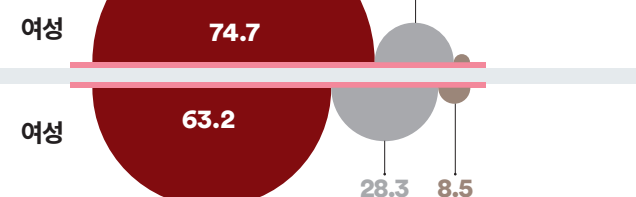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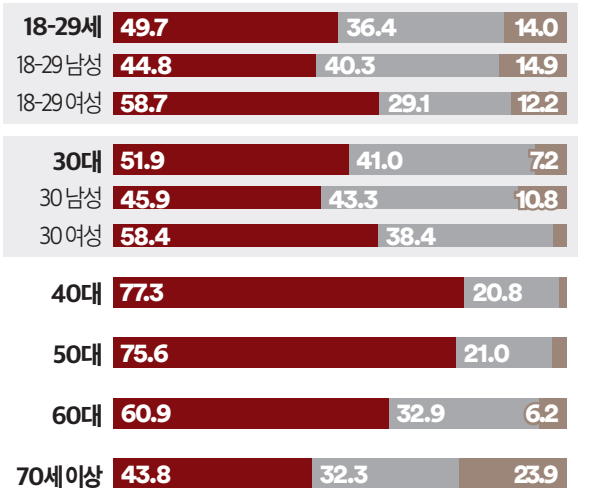
연령



성별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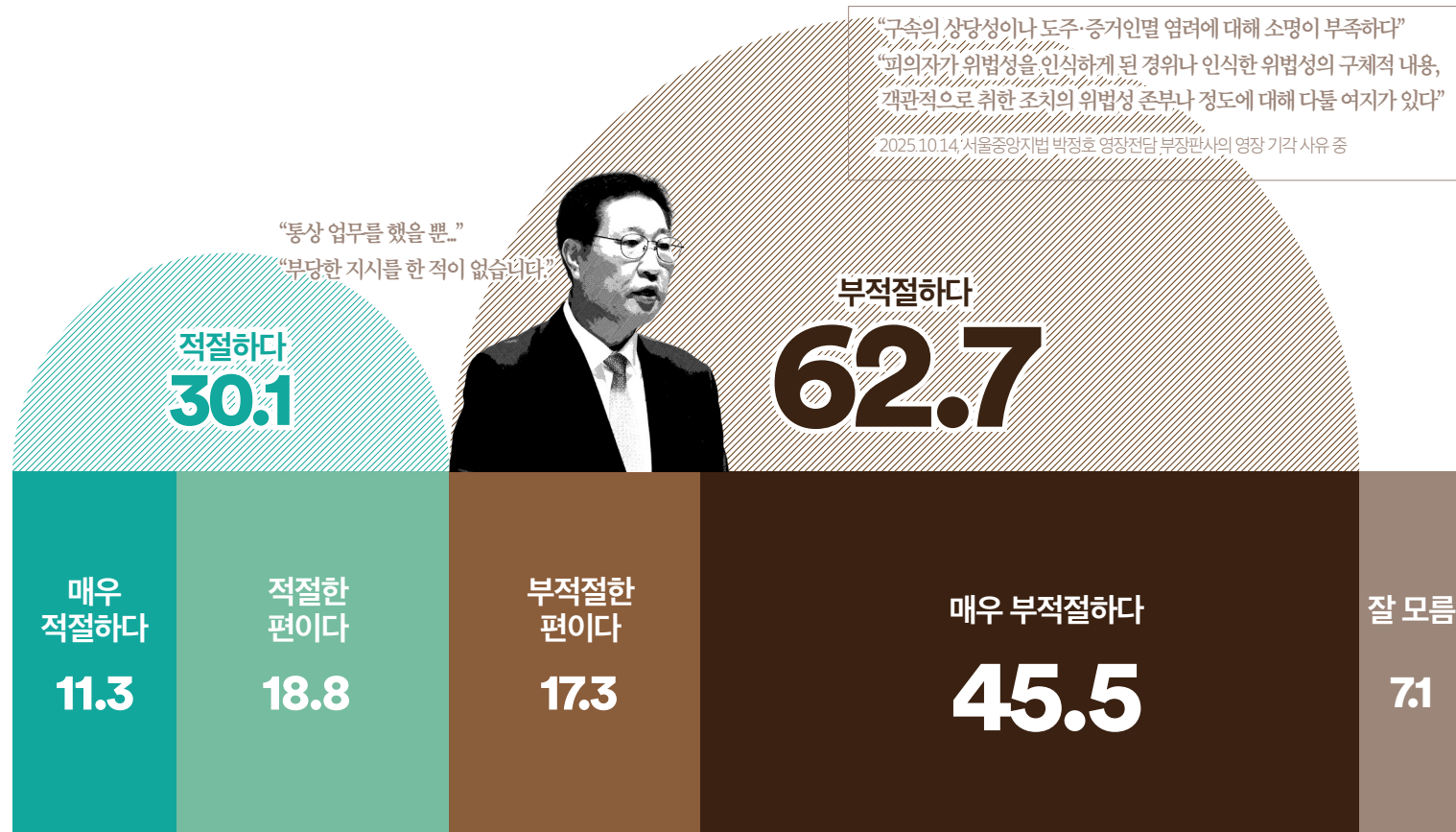


■ 구속 수사 해야 한다 ■ 구속 수사할 필요 없다 ■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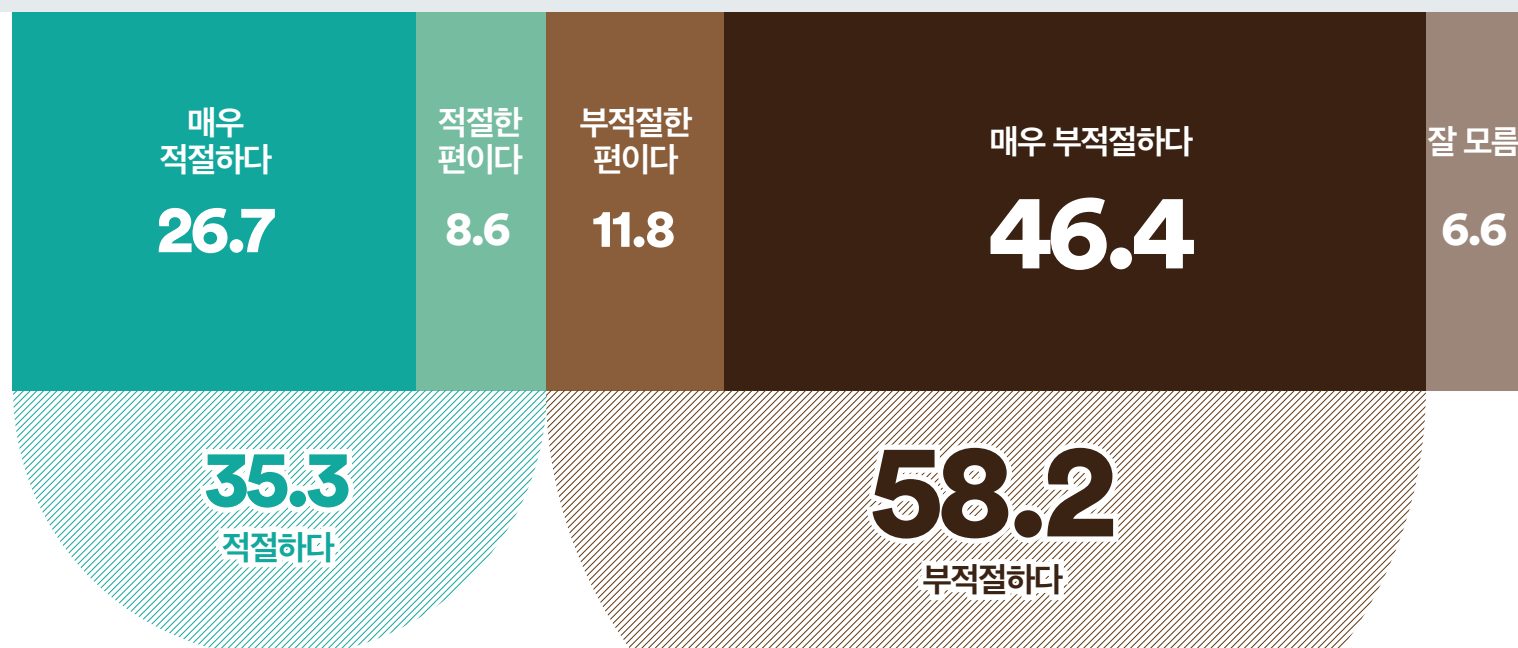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Q. 12.3 내란 당일, 구치소 수용 인력을 확인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중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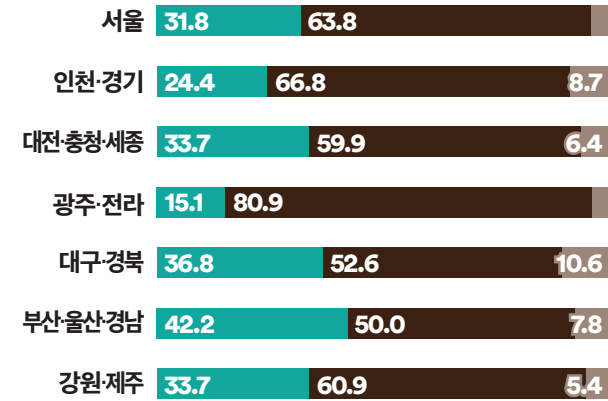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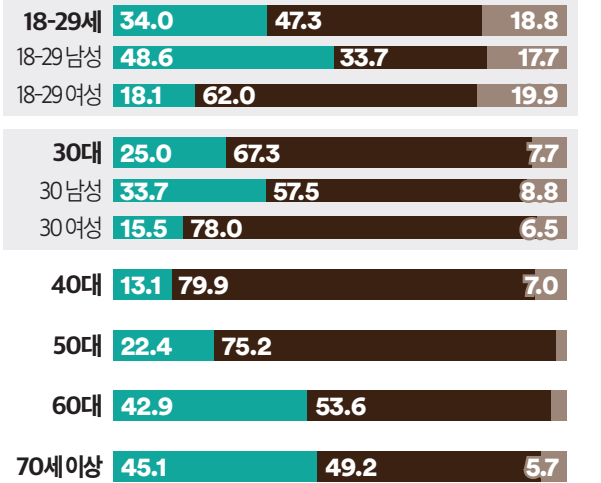


10명 중 6명 정도의 응답자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부적절하다’라고 응답
두 조사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조사됨
두 조사의 모든 권역에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두 조사의 18-29세 남성층, ARS조사의 30대 남성층과 70세 이상 남성층에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우세를 보임(적절하다: C 69.3% / A 7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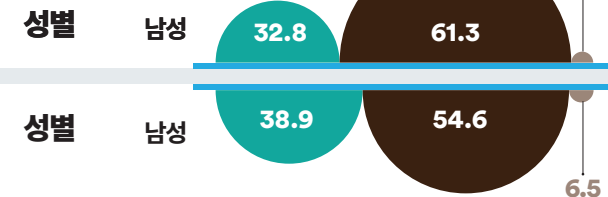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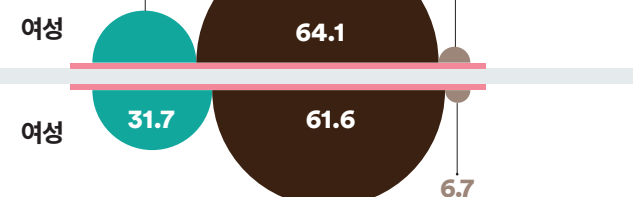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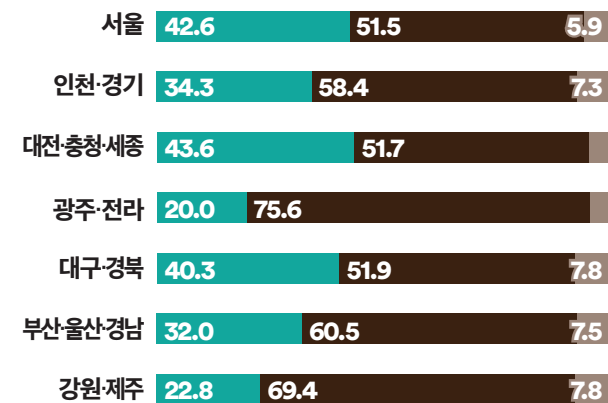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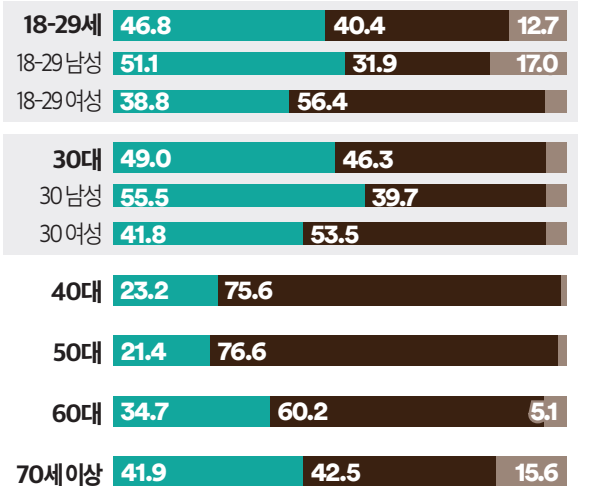
성별



권역



연령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잘 모름



이례적 파기환송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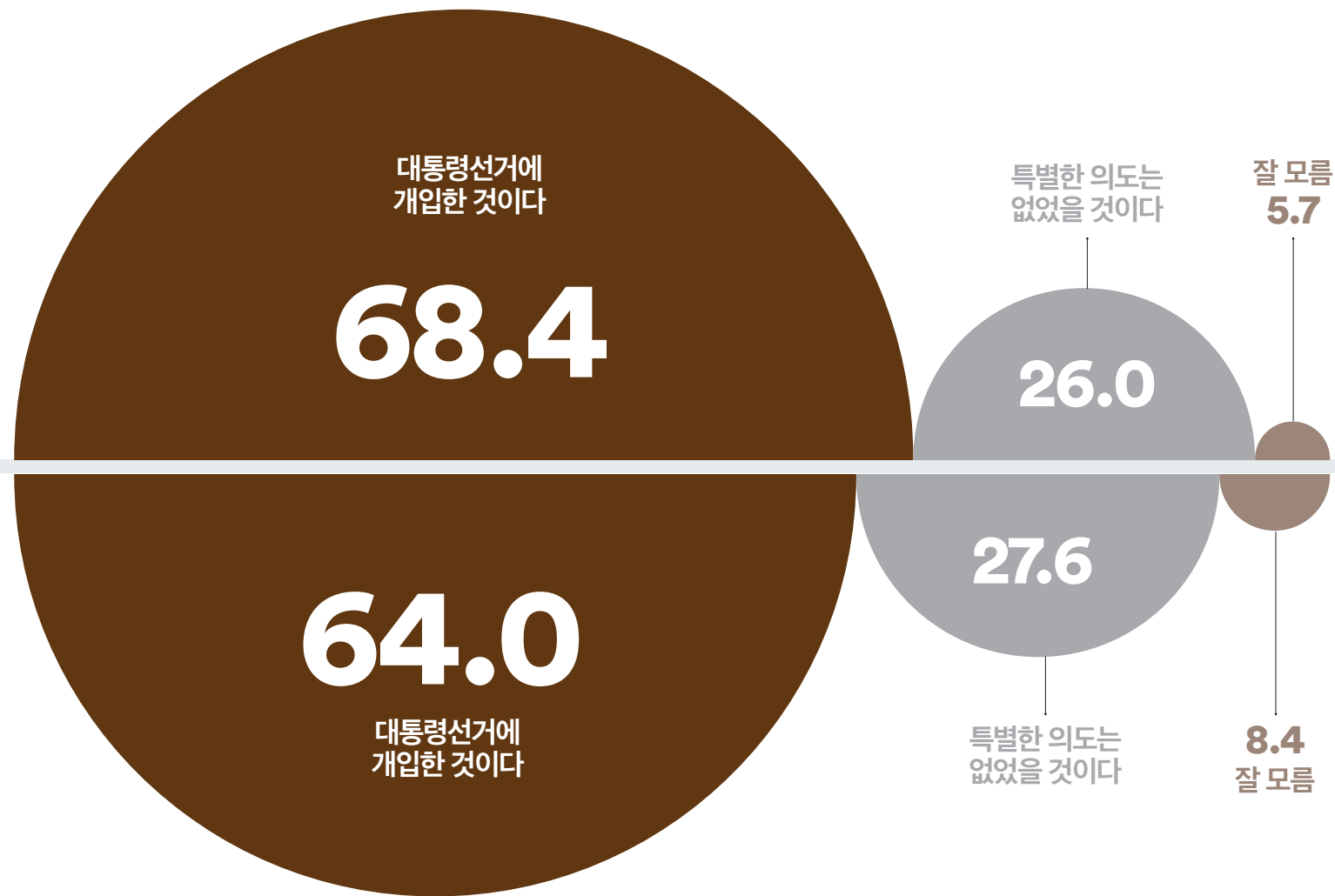
Q. 최근 5년간 35일 미만이 걸린 대법원 형사 사건 1,822건 중 파기환송은 이재명 사건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사건만 이례적으로 빨리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5년간 사건 접수일부터 종국일까지 ‘35일 미만 형사 사건’은 1,822건”
“2002년 이후 ‘35일 미만 형사사건’은 대부분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상고기각 결정·판결 사건”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 파기이송 등 사건은 2004년에 2건, 2006년과 2007년, 2009년에 각각 1건씩,
그리고 2025년에 이 대통령 사건 1건”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긴급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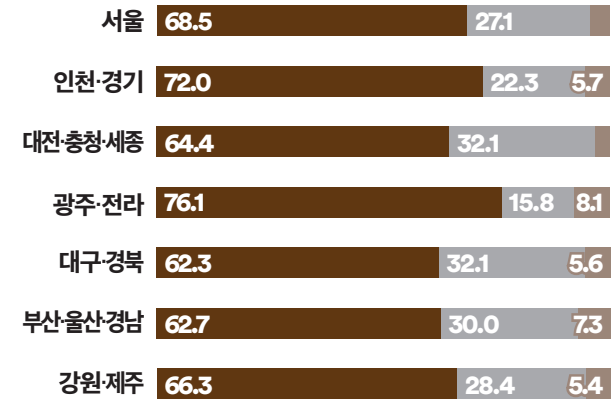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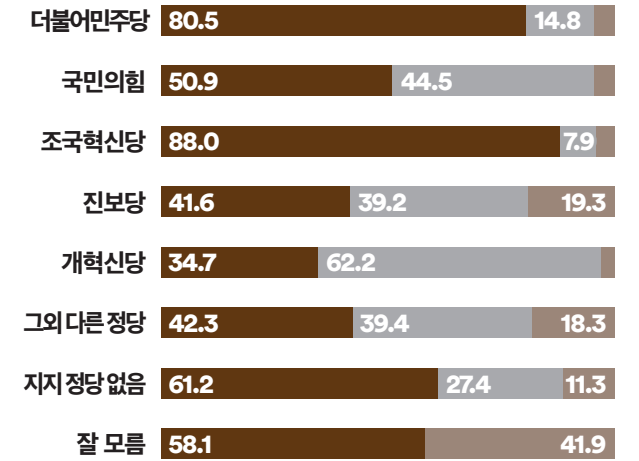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압도적으로 응답
두 조사의 모든 권역과 모든 연령층에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는 응답이 더 강하게 나타남
국민의힘 지지층은 조사 간 응답의 차이가 있어 주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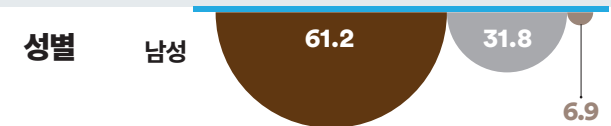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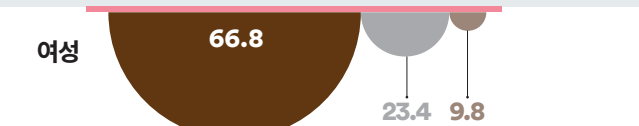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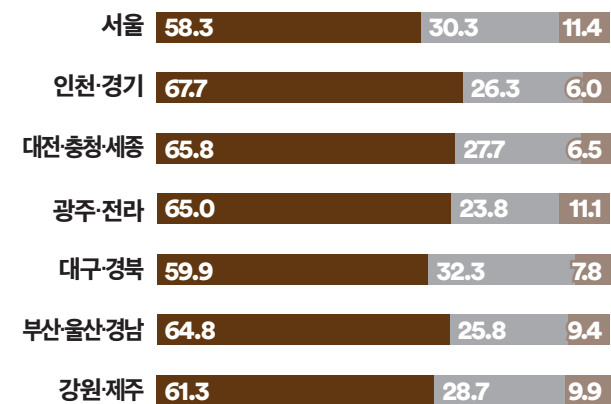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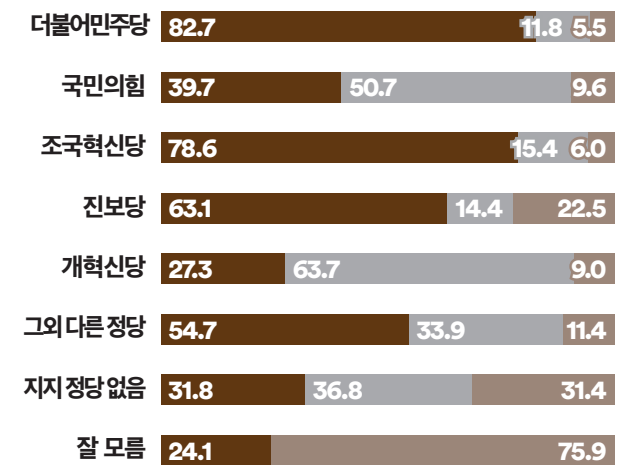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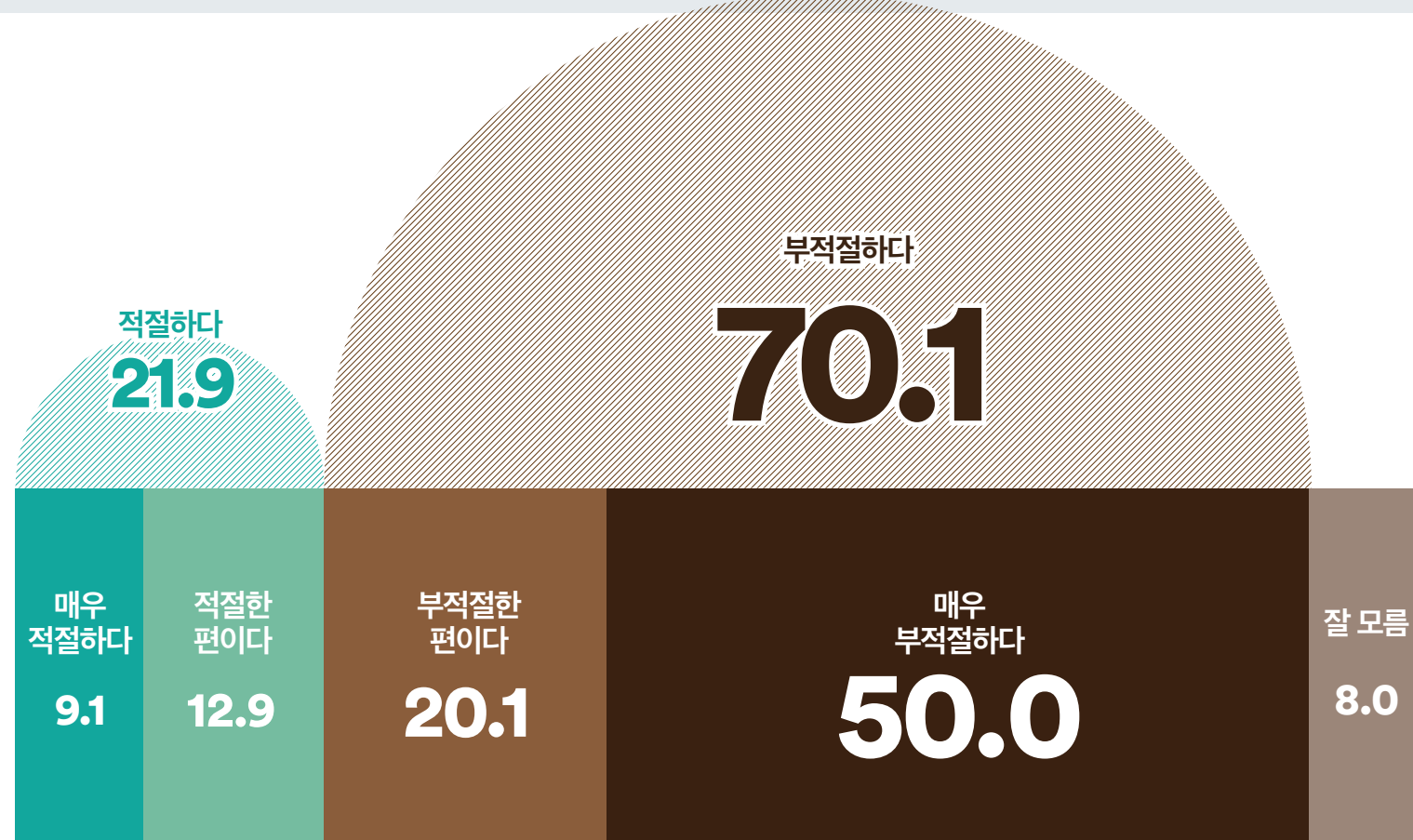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특별한 의도는 없었을 것이다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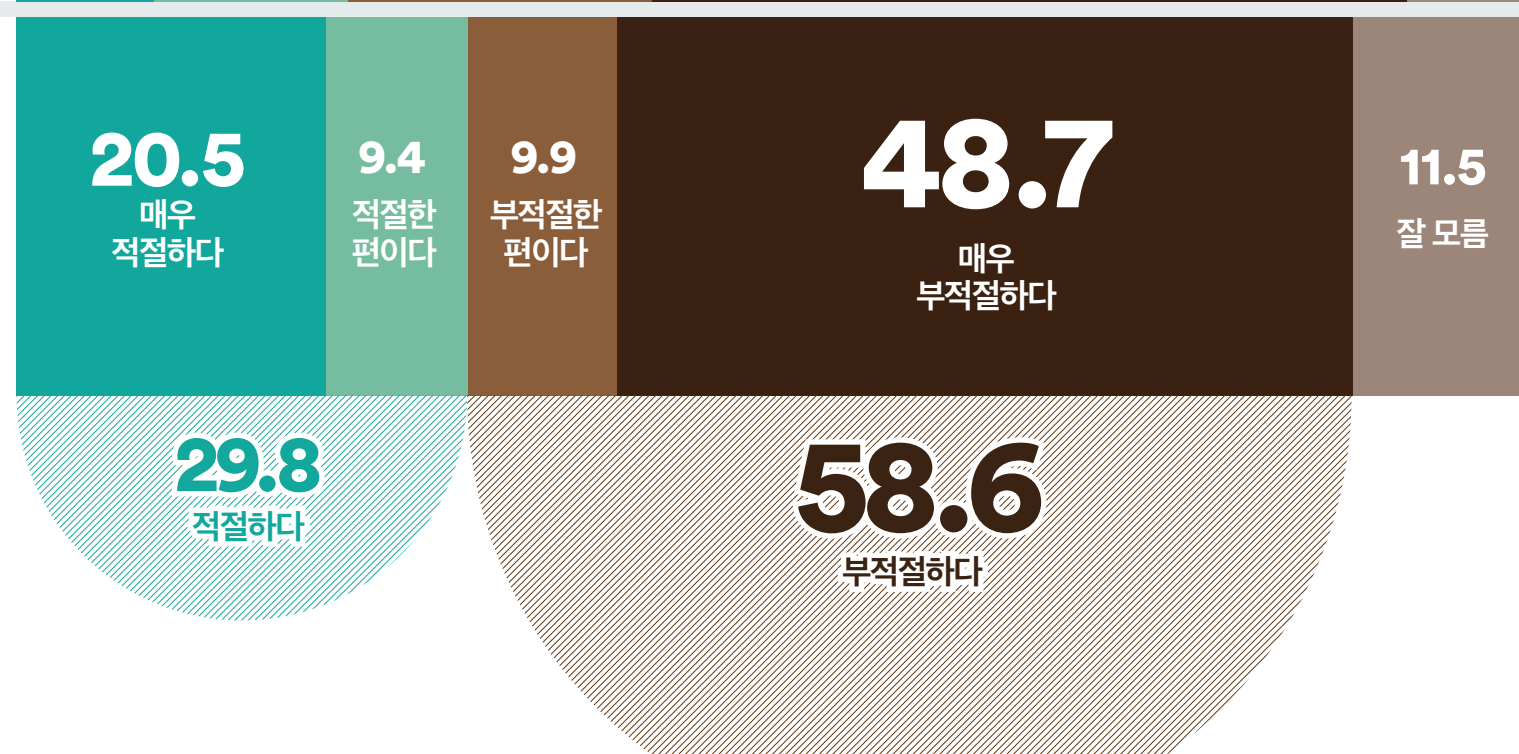
접대 의혹 영장 기각

Q. 대법원은 지귀연 판사의 립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으나, 정작 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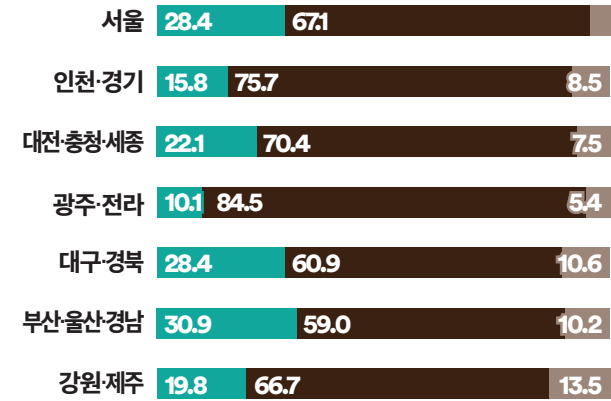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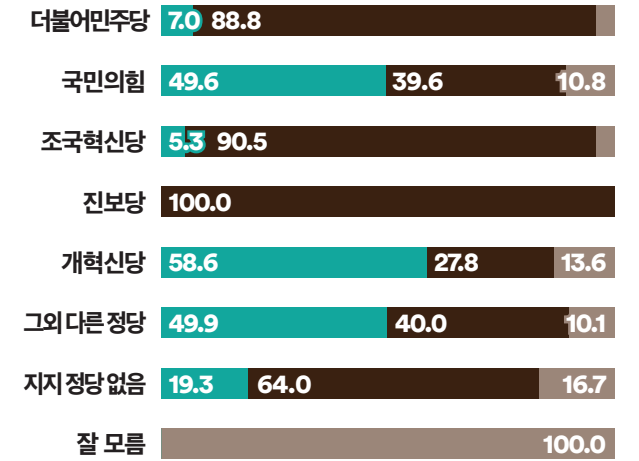


지귀연 판사의 립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대법원과 법원의 행태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압도적 우세를 보임
두 조사의 모든 권역과 모든 연령층에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더 강하게 나타남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적절하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나 다른 응답층과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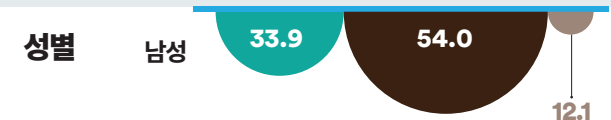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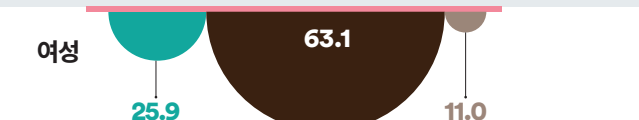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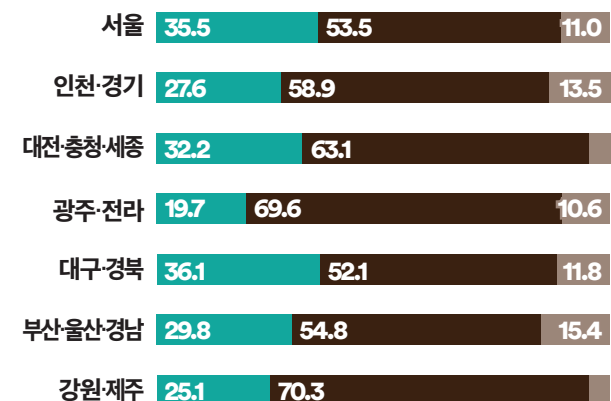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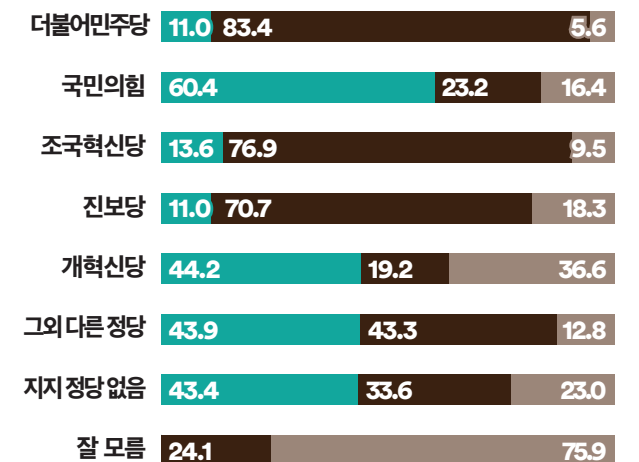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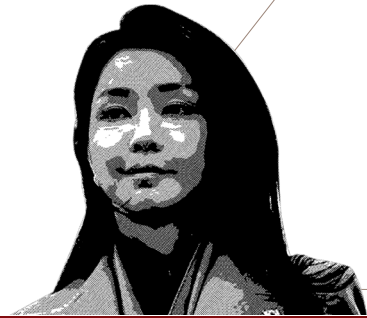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잘 모름



김건희 사적 복수심

Q. 김건희가 자신의 허위경력 의혹을 취재한 YTN 기자에게 “복수해야지 안 되겠네”라고 말하는 녹취가 공개되었습니다. 이후 이루어진 YTN 매각이 김건희의 사적 복수심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말꼬리 잡고 늘어지지 마시고요”
 “내가 이래서 기자들을 못 믿는 거야”
 “이 기자는 완전히 그냥 악의적으로만 쓰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네”
 “나한테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내가 공무원입니까 공인입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까지 검증받아야 해요?”
 “그러면 나도 한번 다 파볼까, 잘못 기재한 거 없나”
 “조금 이력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낸 거고, 이걸 무슨 범죄나 뭐 굉장히 부도덕한 그걸로 몰면 안 되죠”
 “진짜 나도 복수를 해야지 안 되겠네”

노종면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2021년 12월13일 와이티엔 취재 녹음, 김건희 씨 목소리

연관이
있을 것이다
71.6

연관이
없을 것이다
22.1

잘 모름
6.3

ARS

58.8
연관이
있을 것이다

26.6
연관이
없을 것이다

14.6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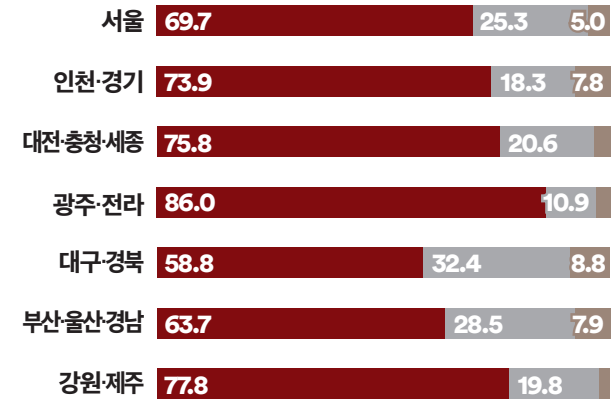
10명 중 6~7명 정도의 응답자가 ‘YTN 매각이 김건희의 사적 복수심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고 압도적으로 응답

두 조사의 모든 권역과 모든 연령층에서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를 보임

ARS조사의 18~29세 남성층(있을 것 41.5% / 없을 것 45.8%)을 제외한 모든 응답층에서 ‘연관 있을 것’이란 응답이 우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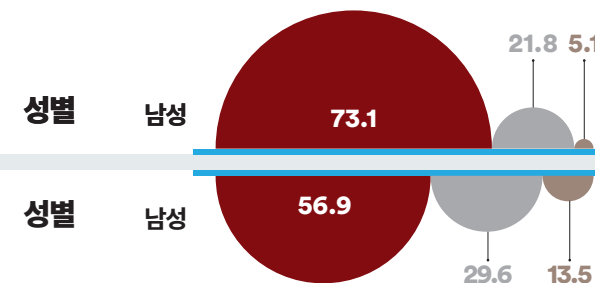
‘연관이 없을 것이다’라는 응답은 두 조사의 국민의힘 지지층(C 54.1% / A 61.7%), ARS조사의 보수층(43.0%)에서 더 높게 나타남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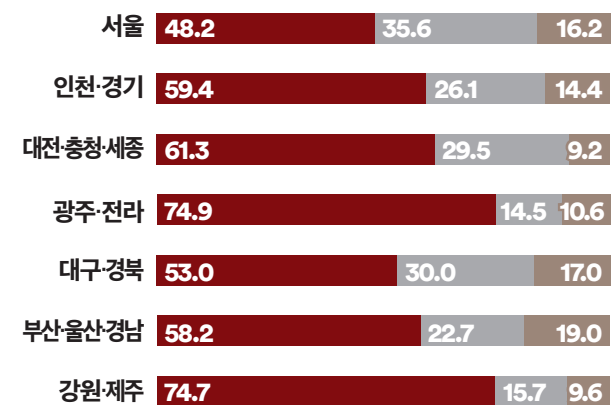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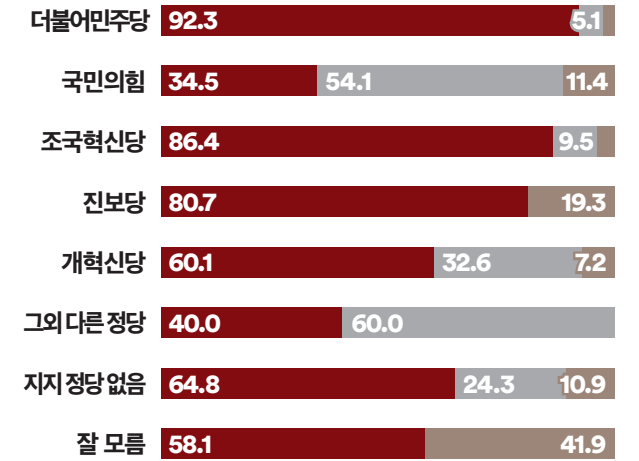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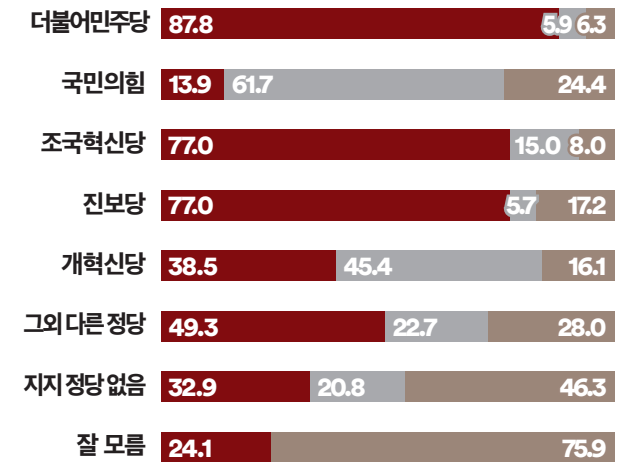
권역



정당지지도



정당지지도



■ 연관이 있을 것이다 ■ 연관이 없을 것이다 ■ 잘 모름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WR_202510_02
